

욥기

욥기의 저자는 알 수가 없다. 욥기는 대화체로 상세히 기록된 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 저자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욥 자신이 가장 유력한 저자이지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다. 내용, 문체 및 유대 전승 등을 들어서 모세로부터 솔로몬, 예레미야까지 여러 명을 학자들이 저자로 거론하였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고 모두가 추측 뿐이다.

욥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닥쳐오는 환란과, 그와 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행복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율배반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 즉 죄가 있다는 인과응보적 고대의 형벌관을 주장한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우주적 초월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이 강조되고 있다. 작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가 아프고 있는데 원죄를,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그의 죄악을 들먹이는 목사들이 의외로 꽤 있는 모양인데 욥기를 다시 읽어야 하겠다.

노트

1. 욥은 어디에 살고 있었나? 우스 땅 (욥 1:1) ➡ 우스는 지명보다 인명으로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한다 – 창 10:23, 22:21, 36:28 등. 지명으로는 본문과 렘 25:20, 애 4:21 에 3 번 등장한다. 우스 땅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애 4:21 에 근거해서, 사해 남동쪽 지역인, 에돔 땅으로 보기도 한다.
2.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 1:1)
3. 욥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나? 아들 일곱과 딸 셋 (욥 1:2)
4.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은 무엇을 하였나?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 1:5) ➡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욥은 번제를 드렸다.
5. 어느 날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섰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 (욥 1:6) ➡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가리킨다.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으로(계 12:9), 하늘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6.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이유로 사탄이 여호와께 아뢴 것은? 주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 1:10) ➡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주께서 율타리를 두르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탄은 말한다. 그에 대한 시험은 이 순서의 거꾸로, 즉 소유물, 집, 욥 자신의 순으로 주어진다.
7. 욥에게 어떻게 하면 그가 주를 욕할 것이라고 사탄은 말했나?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욥 1:11)
8.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내리자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그의 소유물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욥 1:12)
9. 욥의 소유물에 대한 첫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었다 (욥 1:14-15)

10. 욥의 소유물에 대한 두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다 (욥 1:16) → 여기에 하나님의 불은 번갯불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게 주석가들의 의견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엡 2:2) 사탄은 번갯불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11. 욥의 소유물에 대한 세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욥 1:17) → 이 3 가지 시험으로 욥은 1:3 에 언급된 모든 가축과 종들을 잃어버렸다.
12. 욥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나? 말아들의 집에서 모여 음식을 먹을 때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지고 다 죽었다 (욥 1:18-19)
13. 가축과 자녀를 비롯한 모든 소유물을 잃은 후 욥의 반응은 어떠했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하고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 (욥 1:20-22) →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쓴다. 어떤 상황에서 체념하며 이 말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욥의 경우 거두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지만,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는 확신은 내밀한 기도가 있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욥에게서 배울 점은 슬픔을 표출한 것(욥 1:20), 소유물과 가족을 잃는 일과 그에 따른 슬픔을 삶가운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욥 1:21),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점(욥 1:22)이다.
14.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잃고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욥 2:3) 욥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사탄은 하나님께 청원하였나? 그의 뼈와 살을 치는 시험 (욥 2:4-5) → 이는 육체적인 시험을 뜻한다. 4 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표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레 24:20, 신 19:21)라는 표현과 1:1 의 구도가 비슷하다. 후자의 경우는 복수의 개념이고, 전자의 경우는 나의 가죽(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가죽(다른 사람의 생명, 본문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을 내어 줄 것이라는 뜻이다.
15. 욥의 육체적인 시험을 청원한 사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르셨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욥 2:6)
16. 욥에게 가해진 육체적 시험은? 온몸에 종기 (욥 2:7) → 애굽에 내렸던 10 가지 재앙 중 6 번째 재앙과 같은 히브리 단어가 쓰였다.
17. 종기로 고통받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한 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 2:9) →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사건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18. 욥을 위로하려 찾아온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2:11)
19. 욥의 친구들은 며칠간 그와 함께 앉아 있었나? 7 일 (욥 2:13)
20. 욥은 무엇을 저주하였나? 자기의 생일 (욥 3:1) → 괴로운 나머지 태어난 것을 저주하였다.
21. 날을 저주하는 자들은 무엇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인가? 리워야단 (욥 3:8) → 리워야단은 개역성경에 '큰 악어'라고 되어 있었다가 개역개정예 원어로 바뀌었다. 리워야단으로 표기된 히브리어 :לַוְיָטָן는 어느 특정 동물이라기 보다는 큰 뱀, 용, 공룡, 또는 악어와 같은 용트림을 치는 큰 동물을 묘사한다. 3 장에 많이 등장하는 '그 날' 또는 '그 밤'은 욥이 잉태된 날을 뜻한다. 1 절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욥은 자기가 잉태된 날로 거슬러 올라가 그 날까지도 저주한

것이다. 본문의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란 인간으로 제어하기 힘든 큰 동물을 마음대로 부리는 술사들을 뜻한다. 그런 술사들이라면 특정한 날도 저주할 수 있을 터이니 자기가 잉태된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는 것이다.

22. 욥은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꾸짖하였나? 어머니가 무릎에 자기를 안고 젖을 먹인 것 (욥 3:12) ➡ 길러주신 어머니도 원망하였다.
23. 욥이 묘사한 죽은 자들의 세계는 어떠했나?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욥 3:17), 다 평안하며 (욥 3:18),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욥 3:19)
24.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자량이 무엇이라고 하였나? 경외함 (욥 4:6) ➡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지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을 저주하냐는 암시적인 질문을 본문 후반부에서 그는 하고 있다.
25.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고통과 시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나? 죄 (욥 4:7-8) ➡ 그는, 한 형상에게서 들었다고(욥 4:16) 강조하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는(욥 4:17) 그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결국 던지고 있다.
26.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이라면 어떻게 하리라고 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 5:8)
27.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어떠하다고 했나? 복이 있다 (욥 5:17) ➡ 친구들의 조언과 위로 중 그래도 가장 나은 편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 잠 3:11-12 참조.
28. 욥은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을 듣고 어떤 부탁을 하였나?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욥 6:24) ➡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장황하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욥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알려 달라고 하였다.
29. 욥은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였나? 나를 놓으소서 (욥 7:16) ➡ 빨리 죽게 해 달라는 것이다. 6장과 7장에 기록된 욥의 꾸짖에는 인생의 헛됨과 그에 따른 불평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사탄이 바랐던 하나님을 욕하는 일은 없었지만 아슬아슬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30.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어떠했다고 했나? 죄를 지었다 (욥 8:4)
31.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 ➡ 이 말의 배경을 이해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적힌 액자를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으로 보아 진정성이 결여된 말이며, 오히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욥 8:6) 터인데 무슨 꾸짖이 그렇게 많냐는 빈정거림이 묻어나는 말이기 때문이다.
32.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욥 8:20) ➡ 11 절부터 19 절까지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불쾌할 정도로 말했던 빌닷이 욥에게 위로가 될 말을 드디어 했다.
33. 욥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떠하다 하였나? 어찌 의로우랴 (욥 9:2)
34.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떻게 하신다 하였나? 멸망시키신다 (욥 9:22) ➡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전 9:2-3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자신이 처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의롭고 온전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리라는 20 절 본문에 이어,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는 외면되어 있다. 욥의 비통한 마음은 23 절과 24 절로 이어져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묻는 현대의 무신론자들과 흡사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35.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나? 없다고 생각했나 (욥 9:33) ➡ 본문에서 언급된 판결자는 중재자를 뜻하며 32 절에 언급한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도 없다는 데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절실한 대목이다.
36. 욥은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욥 10:2) ➡ 9 장에 이어 욥은 마치 하나님과 재판정에 선 것 같이 강변한다. 여기서 변론은 개역성경에는 쟁변이라 되어 있었다. '변론'하면 우선은 변호하기 위한 논쟁 같은 느낌을 주어, 의견이나 사실을 논하여 밝힌다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 어색하다. 참고로 NIV 를 보면 'I say to God: Do not declare me guilty, but tell me what charges you have against me.'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죄명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10 장에서 욥은 자기가 이런 고난에 처한 이유를 하나하나 짐작해가며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는 다른 결과임을 토로한다.
37. 욥의 친구 소발은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떠하다 했나?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욥 11:2) ➡ 욥의 긴 푸념을 들은 소발은 상당히 언짢아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핀잔하고 있다. 잠 10:19 참조. 11 장은 욥이 자신은 정결하고 깨끗하다 하지만(욥 11:4) 실은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고(욥 11:6) 강조하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주장한다.
38. 욥은 무엇이 하나님께 있고 속하였다고 하였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욥 12:13) ➡ 독선적이고 정죄하려 드는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고 말하며(욥 12:3) 나이들은 자기에게 명철함이 있음을 강조한다(욥 12:12). 12 장에서 욥은 우주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거하고 있다.
39. 욥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 잠잠하라 (욥 13:5) ➡ 욥은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 혹평하고(욥 13:4) 이어서 조용하라 요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자신이 있냐고 되묻는다(욥 13:9).
40. 욥이 하나님께 행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2 가지 일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욥 13:21) ➡ 손을 대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뜻하고 위엄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영적 정신적 고난을 뜻한다.
41. 욥이 하나님께 하옵소서 부탁한 2 가지 일은? 나를 부르시고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욥 13:22) ➡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청원하였다.
42.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어디에 감추어 달라고 호소하였나? 스올 (욥 14:13) ➡ 스올은 개역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었다. 히브리어로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땅속을 뜻하는데 욥 10:21 에 묘사된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설명된다. 욥의 현재 처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스올로 보내 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단지 죽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통으로부터 숨겨 달라는 부탁이었으며, 진노를 돌이키시면 기억해 주실 것을 탄원하였다.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한 고백은 14 절과 15 절로 이어진다.

43. 욥이 3 친구와 논쟁을 그친 후에 화를 내며 등장한 인물은? 엘리후 (욥 32:2)
44.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 하여 (욥 32:2)
45. 엘리후가 3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여서 (욥 32:3)
46.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았나 적었나? 적었다 (욥 32:4)
47. 엘리후의 말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에 욥에게 말씀하셨나? 폭풍우 가운데 (욥 38:1)
48.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여 (욥 42:7)
49.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 42:8) ➡
하나님은 욥을 정죄한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다.
50. 욥의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면 욥은 어떻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나? 욥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욥 42:8) ➡ 자기를 정죄하려고 달려든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 이 것은 욥기의 대 반전이다. 한편 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축복을 내리시는(욥 42:10)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51. 욥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후 몇 년을 더 살았나? 140 년 (욥 42:16)